

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가는 장 미셸 바스키아야. 27세 한창 나이에 죽어서 안타까운데, 이 젊은 천재가 한 말이 뭉클해.

“난 그림 그릴 때 예술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려 하죠 (When I'm working, I don't think about art. I try to think about life).”

마케팅을 기획할 때도 매출에 앞서 고객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렴.